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 책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행 차이* **

Differences Between Parental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for Children Enrolled in Preschools

황옥경¹ 정연아² 송미령³ 명준희⁴

Ock-Kyeung Hwang¹ Youn-Ah Jung² Mi-Ryoung Song³ Jun-Hee Myung⁴

ABSTRACT

* 본 논문은 2019년 한국보육
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19년 한국보육
지원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¹ 제1저자(교신저자)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e-mail : okhwang0@naver.com)

² 공동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³ 공동저자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⁴ 공동저자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박사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vel of parental perceptions and practices on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for children enrolled in preschools and to verify the differences.

Methods: A total of 301 parents whose children were attending preschoo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In addition, the t-test and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ere performed.

Results: First, there are relatively high levels of perception and practice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Second, parental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is higher than the level of actual performance. Third, although parents were highly aware of their role responsibilities, there is a great expectation of the role of preschoo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Fourth, parents value the level of practice of role responsibilities in preschools relatively high.

Conclusion/Implications: Support systems are needed to reduce the gap between parental perception and practice of their role responsibilities for children enrolled in preschools.

key words parental role responsibility, parental perceptions and practices, preschools

I. 서론

최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 가장 지배적인 담론 중의 하나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된 ‘보육의 국가책임론’이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에 커다란 혼선을 주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은 부모라면 당연히 살펴야 할

영유아의 건강, 위생 영역까지 교사에게 떠넘기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곤혹스러워 한다(아시아 경제, 2013). 또한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부모도 있다고 하소연 한다. 부모와 교사 간에 영유아 양육에서의 역할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근래 부모의 역할 책임 약화에 대한 사회적 염려가 커지면서 몇몇 연구가 어린이집과의 역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부모 행동 지침을 연구결과로써 내놓았다(윤재석, 이정림, 임준범, 2015;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이들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나 운영자의 입장에서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마련하고, 이 행동목록을 부모에게 알리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영유아기 시기가 갖는 발달적 중요성은 조기개입 정책 추진의 근거이다. 조기개입의 확대가 영유아 교사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와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나석희, 이현진, 2012; 안지혜, 2012). 영유아기 교사는 쫓기는 듯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후세대를 책임감 있고 협동적이며 유능한 시민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황옥경, 2014). 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부모의 지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교사에게 때때로 상당한 수준의 압박이 되고 부모와 교사간의 역할과 책임의 혼선과 갈등의 단초가 된다.

부모와 교사간의 역할 갈등은 건강하게 양육 받아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부모와 교사간의 상대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불만스러운 인식은 역할 수동성을 동반하며, 양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혼란된 인식과 모호한 입장은 책임 떠넘기기로 인하여 양육의 공백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양육 당사자 간의 역할 책임에 대한 합의는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5조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모 및 가족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였다. 또한 제 18조의 1항에서는 아동 양육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일차적 책임을 명시하면서, 2항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적시하였다. OECD는 부모가 유아교육·보육기관에 육아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자신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육아 역할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OECD, 2012)하였다.

어린이집과 부모간의 역할과 책임 논란은 보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소극성을 극복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임에는 틀림이 없다. 보편주의에 기반한 정책은 개인의 의사 보다 국가의 정책수행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다. 보육정책의 보편주의 지향은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부모개인의 선택 의사보다도 국가의 집합적 운용 계획에 부모를 반강제적으로 유입한 것으로써, 이러한 정책 실행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양자 간의 책임과 역할이 선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부모로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요구를 보편주의 보육정책 하에서 얼마만큼 충족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어떠한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지도 안내 받아야 한다. 전 계층 보육비용 일부 지원 정책이 수행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어린이집과 부모의 역할과 책임 공방이 여전한 것은 보편주의 정책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책을 이행한 데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부모로서의 역할 방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인지를 파악하고, 만일 정말 그렇다면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부모책임’을 아동보호 서비스와 연관해서 부모의 법적책임과 의무의 범주에서 논의하는 일부 선진국가의 접근법과는 달리, 부모로서의 양육 역할에 대한 책임으로 ‘부모책임’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이라는 개념은 길버트의 연구(Gilbert & Hanson, 1983)에서도 적용되었다. Gilbert와 Hanson(1983)은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을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는데, 자녀의 교육 역할,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주는 보호 역할, 가족 및 사회와 자녀와의 관계를 중재해주는 사회화 역할이다. 또한 이를 다시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발달을 돕는 일, 규범과 사회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을 심어주는 일 등 13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부모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책임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일차적인 양육책임자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욕구에 부응해야 하는 일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교사와 어린이집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김영주, 이경화, 2015; 안지혜, 2012; 윤감정, 손환희, 2014)과는 달리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근 일각의 염려만큼 실제로 어린이집 이용부모의 부모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고 실행 또한 저조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인식이 저조하거나 실행 수준이 낮은 부모 역할 책임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어린이집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실행에 대한 평가 수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행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의 주 책임자와 주 실행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어린이집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어린이집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실행 평가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전남, 충북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 301명이다. 본 연구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80%가 서울 및 경인지역에 거주하고, 88.4%의 가족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학부모들의 44.2% 유아가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일 때 처음 어린이집을 이용하였으며, 응답자의 42.9%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301)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	279(92.7)	자녀 수	1명 100(33.2)
	아버지	22(7.3)	2명 157(52.2)	
거주지역	서울권	146(48.5)	3명이상 44(14.6)	
	경인권	94(31.2)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 수	1명 212(70.4)
	대전/충청/강원권	6(2.0)	2명 83(27.6)	
	광주/전라권	43(14.3)	3명이상 6(2.0)	
	무응답	12(4.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44(47.8)
가족구성원	부부+자녀	266(88.4)	사회복지법인 43(14.3)	
	한부모+자녀	7(2.3)	법인단체 등 10(3.3)	
	3세대 이상	23(7.6)	직장 27(9.0)	
	(한)조부모+자녀	2(0.7)	가정 8(2.7)	
	기타	1(0.3)	민간 63(20.9)	
학력	무응답	2(0.7)	기타 2(0.7)	
	고등학교 졸업 미만	2(0.7)	무응답 4(1.3)	
	고등학교 졸업	23(7.6)	어린이집 소개지	대도시 189(62.8)
	전문(2-3년제)대졸	63(20.9)	중소도시 61(20.3)	
	4년제 대졸	170(56.5)	읍면동 51(16.9)	
연령	대학원 졸업 이상	42(14.0)	어린이집 처음 이용시기	12개월 미만 34(11.3)
	무응답	1(0.3)	12개월-24개월 미만 133(44.2)	
	20대	7(2.3)	24개월-36개월 미만 96(31.9)	
	30대	208(69.1)	36개월 이상 33(11.0)	
	40대	45(15.0)	무응답 5(1.7)	
가구 월소득	50대	3(1.0)	어린이집 총 이용기간	12개월 미만 129(42.9)
	무응답	38(12.6)	12개월-24개월 미만 63(20.9)	
	300만원 미만	29(9.6)	24개월-36개월 미만 55(18.3)	
	300-400만원 미만	33(11.0)	36개월-48개월 미만 23(7.6)	
	400-500만원 미만	43(14.3)	48개월 이상 20(6.6)	
주 양육자	500-600만원 미만	55(18.3)	무응답 11(3.7)	
	600-700만원 미만	43(14.3)	맞벌이 여부	예 207(68.8)
	700-800만원 미만	19(6.3)	아니오 92(30.6)	
	800만원 이상	66(21.9)	무응답 2(0.7)	
	무응답	13(4.3)	맞벌이 업무형태	전일제 157(75.8)
비혈연	부	20(6.6)	시간제 50(24.2)	
	모	213(70.8)	비맞벌이 사항	학업 중 1(1.1)
	부모	14(1.7)	취업준비 중 8(8.7)	
	친인척	8(2.7)	휴직 및 출산 휴가 중 10(10.9)	
	조부모	41(13.6)	주부 및 미취업 65(70.7)	
	비혈연	5(4.7)	무응답 8(8.7)	

가 어린이집 이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56.5%가 4년제 대학졸업자였으며, 68.8%의 가정이 맞벌이 가정이었다.

2. 연구도구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과 실행 수준에 대한 질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ilbert와 Hanson(1983)의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Scale의 구성 틀과 문항을 일차적으로 참고하였다. 본 연구진은 Gilbert와 Hanson(1983)이 개발한 부모 역할 책임 척도 외에도 영유아기 부모 역할 책임과 영유아기 발달과제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 자료(김소영, 송효진, 선보영, 2016;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 문무경, 최윤경, 2011;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윤재석 등, 2015; 채명옥, 임소연, 지연경, 2013; Early Education, 2011)를 수집하였고, 연구에 포함된 문항 중에서 영유아기 부모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양육과제를 부모의 역할 책임이라고 판단하고, 어린이집의 보육과 일치하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본 연구진은 ‘위생관리’(5문항), ‘신체활동’(6문항), ‘생존능력’(5문항), ‘인지발달’(5문항), ‘정서적 안정감’(5문항), ‘사회적 기술’(6문항), ‘사회규범 및 가치관’(7문항), ‘건강관리’(5문항), ‘정서적 욕구’(5문항), ‘물리적 환경’(5문항), ‘보호’(5문항),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5문항)으로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어린이집 이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 책임에 대한 8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기관이용 부모의 역할과 책임’ 영역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최종 질문지는 13개 영역의 7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 인식과 실행 정도를 동시에 살펴보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로서 자신이 양육책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부모로서 양육책임에 대하여 실제 실행한 정도를 각각 구분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생관리’, ‘신체활동’, ‘생존능력’, ‘인지발달’,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기술’, ‘사회규범 및 가치관’, ‘건강관리’, ‘정서적 욕구’, ‘물리적 환경’, ‘보호’ 총 11영역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양육의 주책임자는 누구인지?’, ‘실제 주로 양육을 실행하는 자는 누구인지?’, ‘이 영역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역할책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중요하게 느끼는지?’, ‘어린이집이 이 영역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 등에 살펴보았다.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과 ‘기관이용부모의 역할과 책임’의 두 영역은 이미 주책임자와 실행자가 가족 및 기관으로 제시되어 있어 제외하였다. 양육의 주책임자 혹은 실행자에 대해서는 교사, 부모, 부모+교사, 기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고, 어린이집 역할 책임 중요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만, 어린이집 역할의 실행정도는 해당 영역에 대하여 어린이집이 실제 어느 정도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10점 범위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질문지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일부 문항에 대한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한 후 최종 확정하였다. 예비조사는 문항 내용의 적절성 및 문항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7월 19일~7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직접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부모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건강관리’ 영역의 하위문항 중에서 정기적인 예방접종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의 실행 수준이 5점으로 나타나 이 문항은 모든 응답자가 당연히 실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사 문항에서는 삭제하였다.

질문지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회전 후 요인적 재치가 공통요인(Communality)값이 .40이하인 문항은 제외 시켰으며, 사각회전을 통해 추출된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값이 .50 이하인 문항과(Costello & Osborne, 2005), 2개 이상의 요인에서 각 문항들이 요인적재량 1.0이하의 차이로 다수의 요인과 상관을 보이는 문항 순차적으로 제외(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하여 총 3문항이 제외되었다. 그 결과, 11개 요인 총 69개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정서적 욕구’와 ‘정서적 안정감’은 한 요인으로 묶였으며, ‘건강관리’와 ‘생존능력’도 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즉, 요인분석결과, ‘아이의 몸과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해준다.’, ‘손 씻고 양치질하기 등의 청결습관을 기르도록 돕는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위생관리’(4문항), ‘아이와 함께 바깥놀이를 한다.’, ‘아이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등의 문항은 ‘신체활동’(6문항)요인,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에게 비상 전화번호 누르는 법을 가르쳐 준다.’ 등의 생존능력 관련 문항과 ‘등원하기 전 영양이 고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의 충분한 수면을 위해 이른 시간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등의 건강관리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8문항),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조립용 놀잇감을 가지고 논다.’, ‘아이와 읽기, 쓰기, 숫자를 익힌다.’ 등의 ‘인지발달’(5문항)요인,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만들어 준다.’,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도록 돕는다.’, ‘무서워하거나 속상해 할 때 아이를 위로한다.’ 등의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10문항)요인, ‘친구들과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친구들과 함께 놀잇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등의 ‘사회적 기술’(6문항)요인,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 때는 지켜야할 규범이 있음을 알려준다.’, ‘아이가 옳고 그름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등의 ‘사회규범 및 가치관’(7문항),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쾌적한 실내 환경(채광, 조명의 밝기, 통풍 등)을 제공 한다.’ 등의 ‘물리적 환경’(5문항), ‘아이가 언어적 폭력(욕설, 큰소리, 고함치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다.’,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지 않는다(혼자 집에 있게 함, 길을 혼자 건넌, 엘리베이터 혼자 타기 등).’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보호’(5문항),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돕는다.’, ‘조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등의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5문항), ‘알림장, 가정 통신문을 매일 확인한다.’, ‘아이의 발달 상태에 대해서 교사와 의사소통하고 교사와의 역할 조화를 모색한다.’, ‘아이가 특별한 사정에 처했을 때, 교사와 이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등의 ‘기관이용 부모의 역할과 책임’(8문항)요인으로, 총 11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책임 인식과 실행의 전체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98, Cronbach's α .97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구성과 신뢰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도구 신뢰도

하위요인	인식	실행
	Cronbach's α	Cronbach's α
위생관리(4문항)	.89	.88
신체활동(6문항)	.96	.92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8문항)	.90	.82
인지발달(5문항)	.92	.86
정서적인 안정감 및 욕구(10문항)	.95	.93
사회적 기술(6문항)	.95	.92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7문항)	.96	.95
물리적 환경(5문항)	.94	.93
보호(5문항)	.95	.86
가족공동체 의식과 기풍(5문항)	.89	.87
기관이용 부모의 역할과 책임(8문항)	.93	.88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남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이용 부모 404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설문조사 참여 동의를 받았으며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연구 윤리와 연구의 목적에 관해 배포할 안내문을 설문지와 함께 동봉하여, 부모들에게 질문조사 참여 동의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배포한 총 404부의 설문지 중 중복응답 또는 무응답 자료를 제외한 총 30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산출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의 '인식'과 '실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의 각 영역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Martilla와 James(1977)가 제시한 인식도-실행도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하였다. Martilla와 James(1977)의 인식도-실행도 분석(IPA)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실행 간 차이 양상을 살펴보는 매우 효과적인 연구방법으로 각 평가속성의 평균값과 매트릭스만 가지고 빠르고 편리하게 시각적으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Ⅲ. 결과 및 해석

1. 부모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행 간 차이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의 각 영역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 순위를 살펴보면 표 3과 다음과 같다. 부모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 순위가 가장 높은 양육 영역은 ‘보호($M = 4.82, SD = .36$)’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M = 4.76, SD = .38$)’, ‘기관이용 부모의 역할과 책임($M = 4.72, SD = .43$)’이었다. ‘위생관리($M = 4.32, SD = .34$)’는 11개 양육 역할 책임 항목 중 가장 낮은 순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양육 역할 책임 영역은 ‘사회적 기술($M = 4.51, SD = .57$)’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신체활동($M = 4.57, SD = .56$)’, ‘인지발달($M = 4.57, SD = .54$)’, ‘사회규범 및 가치관($M = 4.62, SD = .51$)’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 어린이집 이용 부모 양육 역할 책임 인식과 실행

구분	인식		실행		순위 차이
	$M(SD)$	순위	$M(SD)$	순위	
위생관리	4.32(.34)	11	4.50(.54)	2	9
신체활동	4.57(.56)	9	4.00(.70)	11	-2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	4.63(.47)	6	4.18(.51)	8	-2
인지발달	4.57(.54)	8	4.04(.71)	9	-1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	4.76(.38)	2	4.44(.49)	3	-1
사회적 기술	4.51(.57)	10	4.04(.72)	10	0
사회규범 및 가치관	4.62(.51)	7	4.26(.65)	6	1
물리적 환경	4.64(.49)	5	4.27(.64)	5	0
보호	4.82(.36)	1	4.61(.46)	1	0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	4.67(.47)	4	4.23(.65)	7	-3
기관이용 부모의 역할과 책임	4.72(.43)	3	4.36(.53)	4	-1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의 실행 수준의 평균점수는 부모들의 ‘보호($M = 4.61, SD = .46$)’의 실행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위생관리($M = 4.50, SD = .54$)’, ‘정서적인 안정감 및 욕구($M = 4.44, SD = .49$)’, ‘기관이용 부모의 역할과 책임($M = 4.36, SD = .53$)’의 순으로 부모 역할 책임의 실행 수준이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실행수준을 보인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은 ‘신체활동($M = 4.00, SD = .70$)’이었다.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 인식과 실행 간의 순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인식과 실행 간의 순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영역은 ‘보호(1순위)’, ‘물리적 환경(5순위)’, ‘사회적 기술(10순위)’이었다.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의 순위가 실행의 순위보다 높게 나타난 영역은 ‘신체활동’,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 ‘인지발달’,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 ‘기관이용 부모의 역할과 책임’의 6개 영역이었다. 반면, 인식의 순위보다 실행의 순위가 높은 영역은 ‘위생관리’, ‘사회규범 및 가치관’ 2개 영역이나, 실제 인식의 평균 점수가 실행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영역은 ‘위생관리’ 영역 1개 뿐이었다. 표 4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수준($M = 4.68, SD = .36$)은 실행 수준($M = 4.24, SD = .4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에 관한 인식과 실행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들의 양육 역할 책임에 관한 인식과 실행 간에는 11개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 인식과 실행 간의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다.

표 4.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부모 양육 역할 책임 인식과 실행 간 차이 (N = 301)

구분	인식	실행	인식-실행	t
	M(SD)	M(SD)	평균차	
위생관리	4.32(.34)	4.50(.54)	-.32	-10.95***
신체활동	4.57(.56)	4.00(.70)	.57	15.80***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	4.63(.47)	4.18(.51)	.45	18.86***
인지발달	4.57(.54)	4.04(.71)	.53	15.11***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	4.76(.38)	4.44(.49)	.32	13.71***
사회적 기술	4.51(.57)	4.04(.72)	.47	12.18***
사회규범 및 가치관	4.62(.51)	4.26(.65)	.36	10.40***
물리적 환경	4.64(.49)	4.27(.64)	.37	12.04***
보호	4.82(.36)	4.61(.46)	.21	9.94***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	4.67(.47)	4.23(.65)	.43	14.36***
기관이용 부모의 역할과 책임	4.72(.43)	4.36(.53)	.36	13.67***
전체	4.68(.36)	4.24(.45)	.44	18.76***

p < .001.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 간의 차이를 인식도-실행도 분석(IPA)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인식도)를 X축으로 실제 수행하는 정도(실행도)를 Y축으로 설정하였다.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의 인식(M=4.68)과 실행(M=4.24)의 전체 평균을 원점으로 하여 11개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도-실행도를 분석하였다.

선점도 분석결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의 ‘위생관리(X = 4.82, Y = 4.50)’와 ‘보호(X = 4.82, Y = 4.61)’,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X = 4.77, Y = 4.44)’, ‘기관이용 부모 역할과 책임(X = 4.72, Y = 4.36)’은 2사분면에 위치하며,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X = 4.66, Y = 4.23)’과 ‘물리적 환경(X = 4.64, Y = 4.26)’,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X = 4.63, Y = 4.18)’, ‘사회규범 및 가치관(X = 4.61, Y = 4.25)’, ‘인지발달(X = 4.57, Y = 4.05)’, ‘신체활동(X = 4.57, Y = 4.01)’, ‘사회적 기술(X = 4.51, Y = 4.04)’은 3사분면에 위치하였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양육 역할 책임에 있어 자녀의 ‘위생관리’, ‘보호’,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 ‘기관이용 부모역할과 책임’ 영역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영역의 실행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리적 환경’,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 ‘사회규범 및 가치관’, ‘사회적 기술’, ‘인지발달’ 및 ‘신체활동’에 관해서는 부모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에 따른 실행도 역시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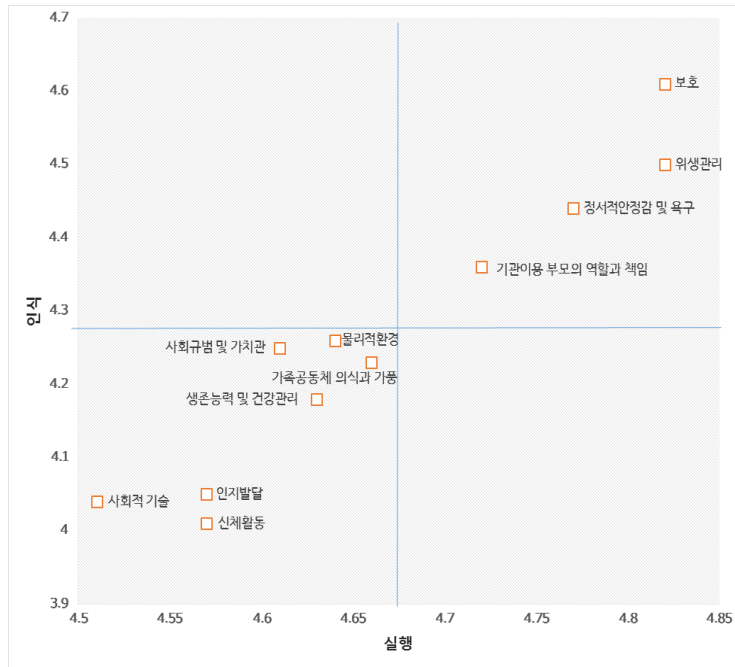


그림 1. 인식-실행 간 차이 산점도

2.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 영역에 따른 주책임자와 주실행자 인식

어린이집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의 각 하위영역에서 “주요 양육 역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양육 역할 책임의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생관리(98.0%)’,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96.3%)’,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94.5%)’, ‘보호(92.7%)’에 대한 주책임자를 부모라고 인식하는 응답 비율이 90% 이상 이었고, ‘사회적 기술’에 대한 영역의 주책임자를 부모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75.3%이었다.

반면, ‘사회적 기술’에 대한 영역의 주책임자를 교사라고 인식한 비율은 18.0%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0.3%)’에 대한 영역은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양육 역할 책임의 주책임 자로 교사와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물리적 환경(8.3%)’이고, 응답 비율이 낮은 영역은 ‘위생관리(1.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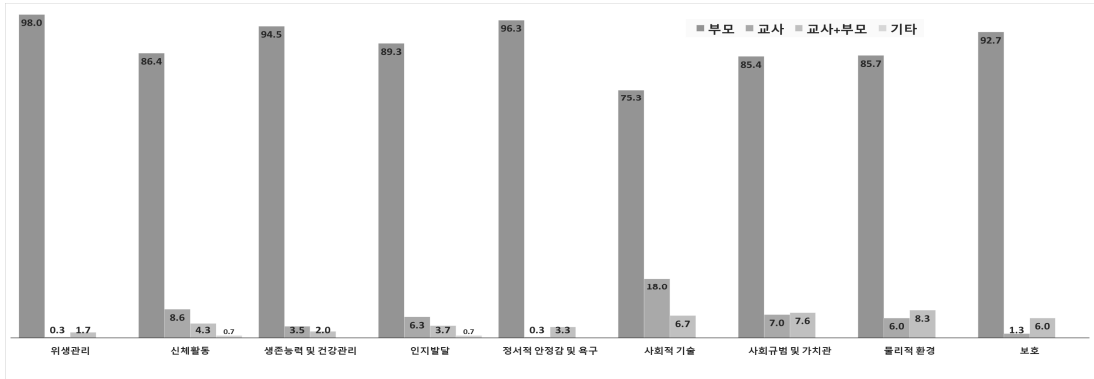


그림 2. 역할 책임 영역에 따른 역할의 주 양육 책임자에 대한 부모 인식 (단위: %)

또한, 부모의 역할 책임 영역에서 주실행자에 대한 인식은 그림 3과 같다. 주실행자에 대해 부모라고 응답한 경우, 역할 책임 영역 중에서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90.8%)’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위생관리(89.7%)’, ‘보호(88.0%)’,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81.0%)’등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한 영역은 ‘사회규범 및 가치관(68.8%)’, ‘신체활동(65.7%)’, ‘사회적 기술(55.0%)’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 역할 책임 영역에 따른 역할의 주실행자가 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회적 기술(34.7%)’, ‘신체활동(24.0%)’, ‘사회규범 및 가치관(19.6%)’, ‘물리적 환경(16.3%)’,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12.8%)’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위생관리(4.0%)’, ‘보호(3.7%)’,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2.2%)’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양육 역할 책임의 주실행자로 교사와 부모 모두 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회규범 및 가치관(11.3%)’, ‘사회적 기술(10.0%)’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양육 역할 책임영역에 따른 역할의 주책임자 및 실행자가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인 영역은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역할 책임에서 주책임자와 주실행자가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일부 영역은 상당 수준에서 교사를 양육의 주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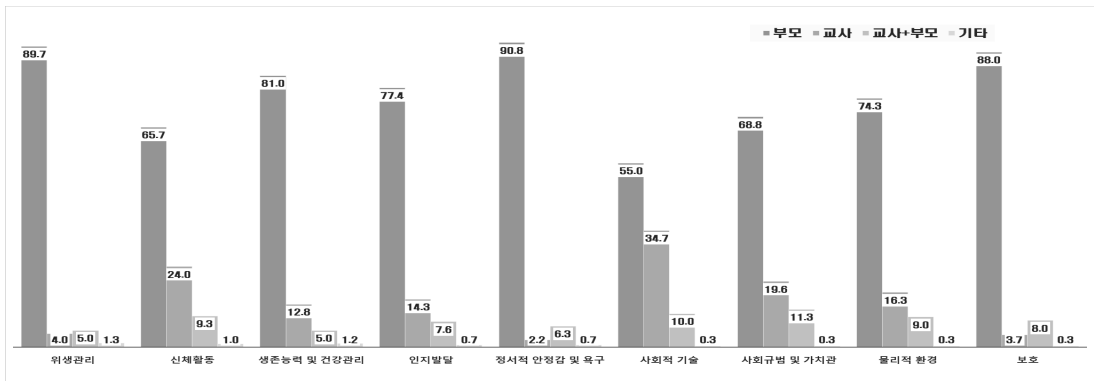


그림 3. 역할 책임 영역에 따른 주 양육 실행자에 대한 부모 인식 (단위: %)

3. 어린이집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어린이집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는 어린이집이 ‘사회적 기술’, ‘사회규범 및 가치관’, 그리고 ‘신체활동’의 역할 책임 영역에서 어린이집의 양육 역할 책임을 높게 인식하였다. 특히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술’ 영역($M = 4.24, SD = 0.72$)에 대한 어린이집의 역할 책임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M = 3.88, SD = 0.68$) 영역에서 어린이집의 역할 책임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였다. 그 다음으로 ‘위생관리’($M = 3.90, SD = 0.76$)와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M = 3.90, SD = 0.70$) 영역에서 어린이집의 역할 책임을 낮게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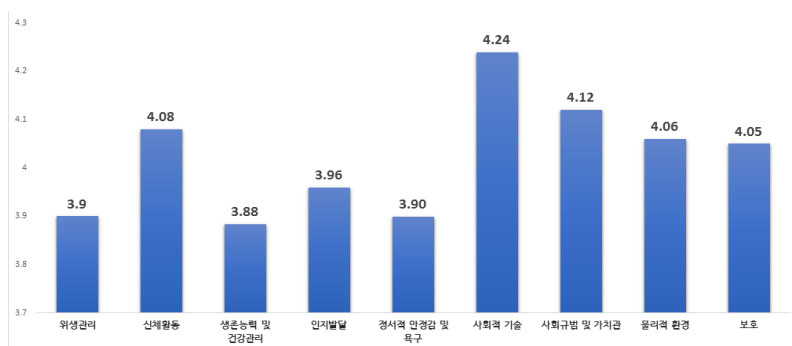


그림 4.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어린이집 양육 역할 책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

그 다음으로 자녀의 양육 내용에 관하여, 어린이집의 역할 책임의 인식 수준에서 ‘중요하게 느낀다.’와 ‘매우 중요하게 느낀다.’라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2개의 선택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생관리,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 물리적 환경, 보호 영역”에서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교사가 부모인 나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해야 할 당연한 역할과 책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양육 역할 책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신체활동, 인지발달, 사회적 기술, 사회규범 및 가치관”의 양육 역할 책임의 영역에서 부모가 어린이집 역할 책임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교사가 부모인 나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와 ‘가정보다 어린이집에서의 양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어린이집의 양육 역할 책임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다중응답결과)

(단위 : N, %)

구분	위생관리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	물리적 환경	보호
어린이집이 양육효과성 높음	60(17.00)	74(21.32)	55(15.55)	66(16.50)	72(18.80)
부모보다 교사의 전문성	78(22.20)	103(29.47)	103(28.85)	100(25.00)	105(27.50)

표 3. 계속

구분	위생관리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	물리적 환경	보호
보육비용 납부	6(1.70)	4(1.14)	4(1.12)	10(2.50)	4(1.00)
기관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	79(22.40)	65(18.74)	71(19.89)	93(23.30)	94(24.60)
교육 및 발달지원은 어린이집	27(7.70)	31(8.73)	33(9.24)	45(11.30)	28(7.30)
양육시간 부족	27(7.70)	22(6.15)	35(9.66)	29(7.30)	25(6.50)
양육지식 부족	11(3.10)	20(5.72)	16(4.48)	8(2.00)	15(3.90)
기타	64(18.20)	31(8.73)	40(11.20)	49(12.30)	39(10.20)
Total	352(100.00)	350(100.00)	357(100.00)	400(100.00)	382(100.00)

구분	신체활동	인지발달	사회적 기술	사회규범 및 가치관
어린이집이 양육효과성 높음	81(19.20)	73(19.50)	127(27.90)	107(25.30)
부모보다 교사의 전문성	109(25.90)	125(33.30)	124(27.20)	125(29.60)
보육비용 납부	4(1.00)	7(1.90)	2(0.40)	3(0.70)
기관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	59(14.00)	60(16.00)	65(14.30)	73(17.30)
교육 및 발달지원은 어린이집	45(10.70)	42(11.20)	41(9.00)	37(8.70)
양육시간 부족	47(11.20)	32(8.50)	24(5.30)	23(5.40)
양육지식 부족	28(6.70)	12(3.20)	15(3.30)	14(3.30)
기타	48(11.40)	24(6.40)	58(12.70)	41(9.70)
Total	421(100.00)	375(100.00)	456(100.00)	423(100.00)

4. 어린이집의 양육 역할 책임 실행 수준 평가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9가지 하위영역 중 ‘사회적 기술($M = 8.72, SD = 1.30$)’ 영역에서 어린이집의 양육 역할 책임의 실행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M = 8.32, SD = 1.49$)’ 영역에서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양육 역할 책임의 이행 수준이 가장 낮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의 이행수준은 9개 모든 영역에 대하여 8점 이상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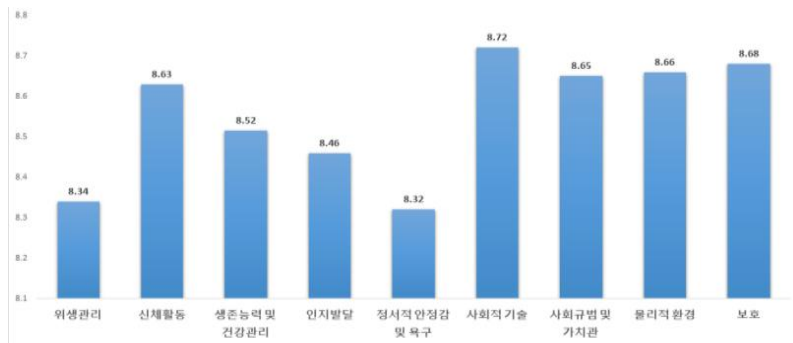


그림 6.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어린이집 양육 역할 책임에 관한 실행 수준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로서의 양육 역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의 양육 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모와 어린이집간의 양육 역할 책임의 혼선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 특히 양육 역할 책임의 어느 영역에서 역할 혼란이 발생할지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몇 가지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의 차이

본 연구의 조사 분석 결과,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과 실행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1차적 양육자로서 부모의 역할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윤재석 등, 2015)와 일치하였다. 다만, 부모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에 비하여 실행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았다. ‘위생관리’는 11개 양육 역할 책임 영역 중 유일하게 인식보다 실행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외 영역은 대체로 부모의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에 비하여 실행 수준이 낮았다. 특히, ‘위생관리’ 영역에 포함된 5문항 가운데 ‘정기적으로 치과검진을 받는다.’와 ‘아이의 몸과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해준다.’의 인식과 실행 수준의 차이가 컸다. 인식과 실행의 간극이 큰 부모 역할 책임 영역은 ‘신체활동’과 ‘인지발달’영역이었다. ‘신체활동’ 영역은 인식과 실행의 차이가 가장 컸는데, 그 하위문항 가운데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와 ‘아이에게 신체운동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는 인식에 비하여 실행수준이 낮았다. 또한 ‘인지발달’ 영역은 그 다음으로 인식과 실행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각 세부 문항별로 보면, 이 영역의 5문항 중에서 ‘아이와 읽기, 쓰기, 숫자를 익힌다.’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의 순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이 영유아 자녀의 양육내용 중에서 ‘신체활동, 인지발달, 사회기술, 사회규범 및 가치관’의 영역에서 어린이집 역할책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양육영역에 있어서의 어린이집에 대한 역할 기대가 클 것임을 예상할 수가 있다.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 영역의 인식과 실행수준이 낮은 것은 전통적인 부모 역할을 고려 할 때 의외의 결과이며, 이 영역에 대한 부모 역할 책임의 무관심에 대한 보육현장의 우려와 일치하는 것이다(나석희, 이현진, 2012; 안지혜, 2012). ‘가족 공동체 의식과 가풍’은 인식과 실행의 평균점수는 다른 양육 책임 역할에 비해 중간정도의 순위에 있지만, 이 점수에 대한 통계적 의미에 대한 산점도 분석 결과에서는 인식과 실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공동체 개념이 희박해 지고 자녀 세대에게 가풍을 안내해 주는 부모 역할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Gilbert와 Hanson(198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주책임자와 주실행자에 대한 부모의 인식

부모 양육 역할 책임의 각 하위영역에서 “양육의 주책임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부모들은 ‘위생관리’,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 그리고 ‘보호’에 대하여 부모가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임을 인식하는 부모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신체활동’, ‘인지발달’, ‘사회규범 및 가치관’,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부모가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라고 인식하는 부모는 80%대에 머물러 많게는 전체 응답자의 15%가량이 이들 양육 역할 책임 영역에 대한 주책임자를 부모 자신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술’에 대한 양육 역할 책임의 주책임자를 교사라고 인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8%로 가장 높았다. ‘신체활동’, ‘사회규범 및 가치관’, ‘인지발달’ 등의 영역에서도 소수의 부모가 교사를 주책임자로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역할 책임 영역에 따라서 양육의 주책임자를 부모 자신이 아닌 이용기관의 교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소 우려스러운 결과이다.

영역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육 역할 책임의 주실행자를 부모자신이라고 보는 인식은 양육 역할 책임 영역별 주양육자를 부모로 인식하는 비율보다 낮았다. 즉, 양육 역할에 대한 주책임자를 부모로 인식하는 부모가 실행의 주책임자를 부모로 인식하는 부모보다 더 많았다. 이를테면, ‘보호’의 주책임자를 부모라고 인식한 응답비율이 92.7%이고, 이 영역의 주실행자를 부모라고 인식한 비율은 88%이다. 주실행자를 부모라고 인식한 응답비율이 ‘사회적 기술 영역’에서는 55%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행수준에 대한 응답이 ‘사회적 기술’에서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았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부모들은 자신들의 양육 역할 책임과 실행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양육 역할의 주실행자가 부모 역할 책임의 영역에 따라서는 부모 자신이 아닌 교사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이 부모 역할 책임을 인식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영역에 따라서는 부모 자신보다 교사들이 주실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양가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부모와 교사 역할 책임간의 갈등의 소지가 보인다. 이것은 부모들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 구조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 역할 영역에 상관없이 부모가 양육 역할 책임의 주책임자이면서 주실행자가 되어야한다는 부모의 인식이 양육 역할 책임의 영역에 따라서 비교적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이 부모 역할 책임의 인식과 실행간 간극을 갖게 된 것은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는 어린이집의 역할에 대한 과잉기대를 부추겼고, 부모는 이에 편승하여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린이집에 과잉의존하게 된 것이 아닌 가 추론해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어린이집의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행 수준에 대한 부모 평가

부모는 ‘사회적 기술’, ‘사회규범 및 가치관’, 그리고 ‘신체활동’에서 어린이집의 역할 책임을 높게 인식하였다. 부모들은 양육 역할 책임 영역 중에서 ‘사회적 기술’에 대한 어린이집의 역할 책임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양육 역할 책임의 주책임자와 주실행자 분석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들은 어린이집 이용이 영유아의 사회적 역량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놀랍게도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 영역에 대한 어린이집의 역할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부모는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에 대하여 어린이집보다 부모의 역할 책임과 실행을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소 의외의 결과는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에 대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역할 책임의 중요성 인식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는데, 부모들은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감 및 욕구 등과 관련한 부모의 역할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부모들의 어린이집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 이면에는 어린이집이 부모 자신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집에서의 양육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부모의 기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모들은 ‘인지발달’, ‘사회규범 및 가치관’과 ‘사회적 기술’ 영역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 책임을 낮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어린이집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 인식 중 전문성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각 영역에 대한 실행 평가의 영역별 수준은 어린이집의 역할 책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전 영역에 대하여 8점을 상회하여 비교적 실행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9점을 넘는 최상위 평가 영역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81점을 상회하는 결과(양미선, 이규림, 손창균, 박상신, 2017)와 비슷하다. 부모의 ‘정서적인 안정감 및 욕구’에 대한 어린이집의 실행 평가는 다른 영역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영역에 대하여 부모 자신의 역할 책임을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의 인식과 실행수준의 간극을 줄이고, 어린이집과의 역할 긴장을 해소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역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어린이집 이용 부모로서의 양육 역할 책임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 양육의 주책임자는 영유아 발달의 전 영역에서 부모 자신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역할 책임의 인식과 실행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 자신의 양육역량을 강화하도록 부모와 가족 그리고 영유아가 발달의 의미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은 ‘생존능력 및 건강관리’ 영역의 세부 항목 중에서, ‘등원하기 전 영양이 고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의 문항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실행수준은 낮았다. 또한 ‘사회적 기술과 사회규범 및 가치관’ 등에 대하여 낮은 실행력을 보여주었다.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역할 책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특별한 양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에게 영유아와의 일상생활에서의 양육을 조력할 수 있는 조력자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양육 영역별 실행 수준이 낮은 부모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셋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모 역할 책임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부모에게 안내한다. 예를 들면 등·하원 시간 지키기, 아침식사 하고 등원하기 등의 구체적인 부모 역할 책임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Abbey, B. n.d.)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역할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절차와 규정에 따르기’, ‘교사 등에게 위협적인 높은 목소리 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술 등을 마시지 않고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어린이집의 결석 및 퇴소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기’, ‘본인 자녀 외의 다른 영유아와의 신체접촉은 피하기’, ‘어린이집의 재산과 다른 영유아나 교사 등의 프라이버시 및 비밀을 보장하기’, 그리고 ‘보육과정이 놀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기’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우리도 어린이집 이용 부모로서 지켜야 할 기본 사항과 부모 역할 책임 목록에 이를 포함해야 할지 고려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소과정에서 부모들에게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부모와의 상호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체계화 하여 영유아의 발달 상태와 역할 책임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을 지원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현재 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규칙 준수 여부의 다소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은 ‘기관이용 부모의 역할과 책임’ 영역의 세부항목 중에 ‘알림장, 가정통신문을 매일 확인한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보고했으나, ‘아이의 발달 상태에 대해서 교사와 의사소통하고 교사와의 역할 조화를 모색한다.’,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부모참여 활동에 함께한다.’의 문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고했다. 즉, 부모들은 알림장등의 어린이집 안내문은 상세하게 살펴보지만, 자신 자녀의 발달과정에서의 고민이나 염려 등에 대하여는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교사 간에 보다 자녀 양육에 관한 질적인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이들 간의 심리적 유대가 필요하다. 부모에 대한 안내 지침에 자녀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협력하고, 염려가 되는 영유아의 행동을 교사와 논의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양육 책임에 대한 부모와 교사 간의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목록화 하고 이의 처리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한다. 이러한 지침은 어린이집의 운영 절차와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물렸거나 등과 같은 친구와의 갈등상황에 처한 경우, 자녀를 늦게 등원시키거나 데리러 오는 경우 등의 논쟁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처리방침과 부모 책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본 연구결과는 단기에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여러 제한된 여건에서 영유아기 발달에 따른 부모역할 인식 여부와 실행 수준을 조사하였기에 연구표집의 대표성을 모색하기 어려웠다. 책임이 부여된 행위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 비교적 관대한 평가를 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는 부모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 대한 부모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부모로서의 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과 실행수준에 대한 기초 정보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이용과정에서 영유아 양육 역할 책임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소영, 송효진, 선보영 (2016).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주, 이경화 (2015). 유아교사의 관점에서 본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237-260. doi:10.14698/JKCCE.2015.11.237.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나석희, 이현진 (2012).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경험과정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해결방안. **유아교육학논집**, **16**(1), 69-94.
-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최윤경 (2011).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11). **어린이집이용학부모 에티켓**. http://www.seoulwomen.or.kr/c2/sub1_1_view.jsp?regNo=1385445444608&nowPage=0&keyField=&keyWord=&order=DATA_REG_NO&orderDir=desc&mTitle에서 2019년 7월 12일 인출
- 아시아 경제 (2013. 12). **“학부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3122113022825579>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 안지혜 (2012). 교사-부모 의사소통에서 교사가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2**(2), 21-46.
- 양미선, 이규립, 손창균, 박상신 (2017). **2017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윤갑정, 손환희 (2014). 예비·현직 유아교사가 생각하는 부모-교사 파트너십. **생태유아교육연구**, **13**(2), 215-240.
- 윤재석, 이정립, 임준범 (2015).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 인천 광역시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채명옥, 임소연, 지연경 (2013). 부모역할 인지 도구의 타당화 및 적용: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 **7**(2), 1-20.
- 황옥경 (2014). **아동생활지도**. 서울: 창지사.
- Abbey, B. (n.d.). *Should Centres Have a Code of Conduct for Parents?* Retrieved November 15, 2019, from <https://www.paysmart.com.au/2015/05/01/should-centres-have-a-code-of-conduct-for-parents>
- Costello, A. B., & Osborne, J. W.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0*(7), 1-9.
- Early Education. (2011). *Code of Ethics*. The British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trieved from October 10, 2019 from <https://www.early-education.org.uk/sites/default/files/Code%20of%20Ethics.pdf>

- Gilbert, L. A., & Hanson, G. R. (1983).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mong working peopl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easu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1), 203-212. doi:10.2307/351309
-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doi:10.1177/002224297704100112
- OECD (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doi:10.1787/9789264123564-en

논문투고: 19.10.15
수정원고접수: 19.11.25
최종게재결정: 19.12.17